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1998년 을 한해 우리 도서관계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추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되며, 우리 도서관계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우리 협회에 서는 本誌面을 통해 도서관계 각 단체의 을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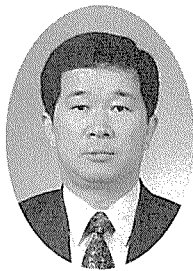
【 설문사항 】

- 1 귀하께서는 IMF시대의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그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귀 단체의 을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회장 김창근

정보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상호대차 제도
활성화해야



1 기업의 비정상적인 확장과 정부의 외환 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초래된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서 불어닥친 외환란(外換亂)은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과학 기술 분야의 모든 도서관에도 예외 없이 닥쳐와서 우리들은 그 파장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53개 회원 기관 중에서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은 정부 조직 개편

에 따른 연구 기관 통폐합과 그에 수반되는 정보 관리 부서의 통폐합, 민간 기업체 연구소는 기업 자체의 감량 경영을 목표로 하는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한 정리 해고를 우려하는 회원들이 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또한 필요한 정보 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과학기술계의 도서관은 외환 비용의 절대 상승으로 인하여 정보 자료 수집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첫째, 각 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하고, 둘째, 각급 도서관간의 협력을 도모해서 수집되는 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IMF시대에서 우리 도

서관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2

1. 정보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상호대차 제도의 활성화

- 온라인 ILL 기반 조성
- 온라인 시스템 개발
- 시스템 배포 및 시험 운영

2.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온라인 원격 회의 기능 활성화
- 상호대차 기능의 정착
- 회원 관리 자동화

3. 정보관리총람 및 정보 수집 편람 발간

- 4. 본 협회회의 전 출판물의 디지털화 -CD
- ROM 제작

5. 교육 훈련

- 세미나 개최
- 홈페이지 기능 사용자 워크샵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회장 박준식



도서관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낭비요인을 감소시키는 경영능력 필요

1

IMF체제하에서 도서관계가 당면한 공통적 위기는 ① 도서관 신설의 유보나 규모의 축소 조정, 조직 개편을 통한 임원 감축(특히 공공도서관)이 예상된다. ② 정부 기관, 기업, 대학 등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최소 10~30%씩 축소하고 있어 도서관도 이에 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물가 상승분,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능력의 저하를 생각하면 자료구입비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대응책은 ① 시설, 설비, 자료수집 규모의 확대 등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해외 학술잡지의 지역별 분담구입과 공동이용, 상호대차의 확대와 문헌배달서비스의 도입 등 자원을 공유하는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 ② 도서관 자체의 경영 합리화를 통해 낭비요인을 감소시키는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③ 정부조직 개편에서 도서관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서관인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2

① 학술활동의 강화 : 연2회 정기 학술대회, 1회의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를 통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 개발과 보급

② 3월 26일의 인터넷 관련 워크숍(해외 교수, 정보기술연구소 소장, 도서관 및 정보 전문직 초청)을 통해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서관 현장 보급과 학술단체와 도서관 현장의 밀접한 연계 도모

③ 회원 규모를 확대하고, 회원 구성을 학자 및 연구자 집단과 도서관 현장의 사서가 조화를 이루게 하여 도서관계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체제의 기반구축

④ 외부 지원금(기부금, 연구비, 정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광고비 등)의 대폭 확충을 통한 학회의 안정적인 발전기반 조성

⑤ 약 300명의 개인회원, 100개의 단체 회원에 대한 회원명부를 발행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

보 교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

서지학회

회장 배현숙



도서관의 신규설립에
있어서 문화센터로의
변질을 막아야

1 경제의 불황상태는 도서관계에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적인 측면, 자료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인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이나 사업장마다 인원을 축소하는 마당에 신규채용은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신규설립에 있어서 문화센터로의 변질을 막아야 그나마 사서직의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서적의 제작단가는 올라가는 반면 간행서의 종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간행된 서적의 구입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외서적은 환율문제로 예년의 절반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관망하면서 지역망, 주제망을 구성하여 동일서적의 중복구입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설면에 있어서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축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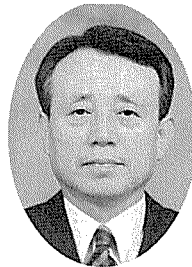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하루살이인가 보다. 흥청망청 쓴다는 생각은 전

혀 없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부도사태가 연이오고 외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견한 경고가 있었다면 미리 대비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일찍 외국잡지를 계약한 극소수의 도서관에서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니 천만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2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질문을 접했을 때 학회 임원 개선이 방금 끝난 직후라서 아직 인수인계도 안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할 수는 없을 지라도 이미 마감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이라도 밝힐 수밖에 없다. 학술발표회와 학회지의 발간은 여전히 추진하고 회원배가를 위한 노력도 할 것이다. 아울러 저변확대를 위해 학회원의 공동집필로 입문서를 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업계획은 어느 학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교육협의회

회장 한성택



급변하는 지식 산업사회에
대비하여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맞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실무사서를 배출하는데
노력

1 '98년 한해는 우리 도서관계도 특별한 한해가 될 것 같다. 지난해에 정권을 교체

하는 선거를 치루어 새정부가 들어설 것이며, 소위 IMF한파가 거센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우리 도서관계도 그 여파가 분명히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에 IMF의 거센 여파가 어떻게 닥쳐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우선 정리하고 환경은 사서직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치열한 취업경쟁 속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도서관 이용자가 대폭 증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양면성의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 현장의 사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더 열심히 수행해 나가고, 사서직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도서관 봉사로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사서직 양성에 그 어느때 보다도 실질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계의 권익을 대표하는 협회는, 도서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협회 회원들은 협회의 사업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어야 한다.

도서관인 모두가 IMF시대를 이러한 방향으로 대처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98년의 우리 도서관계는 희망의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2 우리 협의회는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발전을 위한 공동체로서 지난 '91년 3월 26일 발족되었다. 협의회는, 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

지한 자세로 대처하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교육개혁과 산업사회 구조환경의 변화 등은 대학 교육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전문대학도 특단의 노력을 통한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 교육은 재학연수 보다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2년을 가르치니까 4년을 가르치는 대학보다 한수 아래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몇년을 가르치느냐 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교육협의회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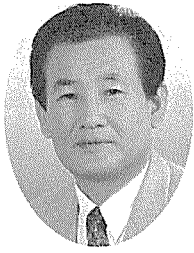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과감한 교육과정의 개편, 교육수요자인 학생중심의 교육, 교수의 자기개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도서관계와 학계에서의 전문대학 교육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우리나라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일익을 다하기 위하여 현장과 학계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도서관계 및 학계의 각 중 사업 활동에 우리 협의회도 계속 참여할 것이다.

셋째, 급변하는 지식 산업사회에 대비하여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맞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실무사서를 배출하고, 배출 후에도 교육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학력파괴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우리 교육협의회의 역량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한국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

회장 엄갑도



화려하고 거창한 사업은
줄이고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사업을 계획

1 무인년(戊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벽두부터 경제적 위기가 세찬 IMF한파를 몰고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경제적 한파가 가슴을 죄이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빈곤한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나 정치인들은 항상 문화사업 예산에 인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IMF시대, 초 건축 재정운용을 계획하고 있는 올해는 문화예산, 특히 도서관계 예산이 막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문화가 찬밥 대접을 받고, 정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앙드레 말로가 말한 바와 같이 「문화란 민족의 내일을 밝혀 주는 빛이며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맞아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쓴 신라의 고승 혜초(惠超)의 말이 생각납니다. 「만권의 책을 독파하고 만리의 파도를 헤친다(讀萬卷書 破萬里波)」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고, 책속에서 지혜를 찾아 그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일을 우리 도서관계인들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일수록 국민들이 한권의 책이라도 더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우리 한국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현장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회 입니다. 회원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에서 사서직으로 관장직을 맡고 있고 현재 회원수는 65명 입니다.

우리 연구회의 활동도 IMF한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급적 화려하고 거창한 사업을 줄이고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기별 회보 발간입니다. 회원들의 신상 변화, 즉 승진, 전보, 표창 등 회원 상호간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하고, 현장실천 사례의 연구,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공공도서관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대표자 회의를 연 2회 개최하여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나아갈 길을 조망해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 연구회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전국의 회원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회원 전체의 친목도모와 연구발표를 위한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소,

시기, 내용 등은 지역대표자 모임에서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일체감 위식을 고양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회원 모두에게 심어 주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도서관인으로 변모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정보사회의 급변하는 변화, 그런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력, 그리고 IMF시대에 밀어 닳치는 도서관의 위기 등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를 모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인 모두는 IMF 한파가 몰아쳐오고 있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다양한 도서관 활동을 통해 더욱 건전한 정신문화를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운동연구회

대표 이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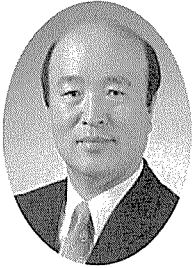
도서관정책모임을 꾸려 6월에 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시기에 합당한 대중사업을 전개할 예정

1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찾아온 IMF시대로 인해 도서관에 대한 정당한 논의가 묻혀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제일주의와 안보주의로 일관해온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계는 그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IMF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정보와 문화, 교육이 공적 기능을 회복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관계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왔던 사서직의 인력수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과 현장 사서직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도서관운동연구회의 올 한 해 중점사업은 도서관운동의 이론을 구체화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주 연구과제로는 도서관 정책, 학부제와 사서자격증, 사서직 인력 수급문제, 대학교육과 산업인력수급, 공공도서관 운영 일반, 공공도서관 운영의 주민참여 방안으로 설정하였다. 이중 도서관정책사업은 '97년 대선후보별 도서관정책질의서 작업의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상반기 중에 도서관정책모임을 꾸려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자치단체 선거시기에 합당한 대중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98년도의 사업 방식은 다양한 연대와 실천의 강화이다. 민간도서관운동과 제반 사회운동과의 협력과 공동 사업을 통해 도서관문제를 사회에 인식시키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는 토대를 세우고자 한다. 사서직들만이 아는 도서관문제, 그리고 배타적 전문직운동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의 기틀을 확립하고 그 속에서 전문인이 해야 할 바를 찾아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회의 조직구상을 심화하는 것이다. '95년 2월 창립한 도서관운동연구회가 앞으로 더 유의미한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 운영상의 조건을 만들고 세부적인 계획과 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 권기원

분담수서와 도서관 상호대차를 포함하는 LAN 시스템구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1 대학 당국의 지원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대학도서관은 대학내 다른 어떤 기관보다 IMF한파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다. 우선 학술잡지의 환차손이 각 대학 학술잡지규모에 따라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외국 도서수입과 정보화 추진에 따른 멀티미디어 구축 등의 제반적인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이르고 있어 대학의 연구와 교육위주의 참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이제 대학도서관들은 외환위기에 고통을 분담하는 각고의 정신으로 특성있는 전문영역의 대학이 되기 위한 분담수서와 도서관 상호대차를 포함하는 LAN 시스템구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 한국문헌정보학회는 지난해에 문헌정보학 관련 4개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도 모든 회원들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학회 Home Page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 2회의 학술발표회 및 학술발표논집발간(4월, 10월), 학회지 년4회 발간(3월, 6월, 9월, 12월), 년 2회의 학회소식지 발간(6월, 12월) 등 회원들의 성실한 연구 발표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자 한다.

이 설문은, 공공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부산지구협의회, 대구·경북 지구협의회, 광주·전남 지구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작은도서관협의회, 전국사서협회, 한국문헌정보학연구회, 서울중등학교 도서관교육연구회 등에도(총 23개 단체) 보냈으나 마감일 전에 도착된 원고만 이번호에 게재하였음. ■ 편집자주

알림

한국도서관협회 e-mail 주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klanet@kol.co.kr ⇒ klanet@hitel.net

<변경전>

<변경후>